

커뮤니티통역을 통한 학부 통역 수업의 다양화

김 순 미
(숙명여대)

1. 서론

통역은 대화 형식, 장소, 참여자들 간의 관계 등에 따라 크게 회의통역과 커뮤니티통역 (혹은 공공서비스통역) 으로 구분된다. 회의통역은 국제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이고 일방향적인 의사소통이며 커뮤니티통역은 한 지역사회 내에서 주류 언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을 위한 대화통역으로 “우리 이웃이 된 이주 노동자 등이 우리 법정이나 병원을 찾을 때 법관이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역”(곽중철 2010: 7-8)이다. 현재 국내 대학 학부의 통번역 교육은 순차, 동시통역 중심의 회의통역과 다양한 분야의 번역 실습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화통역 중심의 커뮤니티통역 교육은 배제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통번역 수업이 이같이 구성된 이유에서 시작하여 통역의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는 커뮤니티통역을 중심으로 통역수업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외대, 경희대, 동국대 등 학부에 통번역학과가 존재하는 국내 3대 대학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영어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제무역, IT, 행정 분야에서 활동할 국제 감각이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¹⁾ 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첫째, 노트테이킹, 영한/한영 순차통역, 문장구역, 동시통역 등 ‘다양한 방법의 통역 실습’ 과목, 둘째, 영상번역, 문학번역, 금융/IT번역, 로컬라이제이션번역, 미디어번역 등 ‘장르를 달리한 번역 수업’, 셋째, 영문법, 영어 강독, 고급 프레젠테이션, 글쓰기, 토론, 국제통상/비즈니스 영어 등 통번역 관련 ‘언어구사력 함양과목’ 등이다. 통역의 경우 대화통역보다는 순차나, 동시 등 국제회의에 필요한 통역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역의 이론적 배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루는 과목은 많지 않다. 이는 ‘전문적 언어인재 양성’이라는 기술 위주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임을 알 수 있다.

1) 한국 외대 통번역전공 EICC학과 웹사이트(<http://hufseng.hufs.ac.kr/>) 에서 밝히고 있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국제기구, 대기업형 언어전문 인재 양성에 있다. “(1) 우수한 통번역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국제 교류의 중앙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2) 국제기구,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세계어(Lingua Franca)인 영어로 능숙하게 소통하고 국위 선양할 국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배출하며 나아가(3) 영미 지역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통섭형(統攝型)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통번역학전공 웹사이트 (<http://english.khu.ac.kr/index2.asp>) 에서 밝히는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전문적 영어 사용 능력 (2)영어권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과 전문적 지식의 습득 및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 (3)세계의 다문화 환경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공동 교육 목표로 삼는다. 통번역학 전공은 세계화의 의사소통 매체인 영어와 관련된 통역과 번역의 기초 지식과 실용적인 전문 기술의 습득을 통해 통번역학 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희대 영어학부 통번역학 전공의 목표는 이처럼 인문학적 소양과 다문화 이해의 중요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공 교과과정은 동시통역까지 아우르는 국제회의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국대학교 영어통번역학전공 웹사이트(http://www.dongguk.edu/mbs/kr/subview.jsp?id=kr_030102030000)에서 밝히는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의사소통 전문가, 국제영어전문가 양성 (2) 언어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적 안목으로 학문발전에 기여할 전문인 양성 (3) 영어에 대한 통찰과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개발하여 다음 세대의 인재를 키워낼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

그렇다면 회의 통역과 구분되는 커뮤니티 통역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분야는 통번역 교육과정에 제외되었을까? 지금까지 통역은 “국제 회의 통역과 국제회의 통역을 제외한 통역, 혹은 전문 통역과 비전문 통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적용되었다”(류현주 2006: 89). 이 맥락에서 대표적인 커뮤니티 통역인 의료통역이나 법정통역의 경우 언어가 가능한 임시(ad hoc) 통역사들이 맡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과소평가 되었고, 통역사에 대한 처우나 업무환경도 열악했다. 또한 전문 통역사 양성 시스템이나 대학교육도 부족했고, 직무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 윤리 강령을 세울 공식 기관도 없었다(Mikkelson 1996; Hale 2005). 그로인해 통역사들도 전문 직종으로서의 주체성이나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갖지 못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전문직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 또는 ‘서비스’ 등과 같은 단어로 정의”(곽중철 2010: 10)할 수 있는 것이다. 이화여대 통번역연구소의 ‘난민전문통역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통역인 운용방안’(2014)에 의하면 이민자의 수가 많은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나 호주 등을 중심으로 통역사 양성, 평가 시스템을 전문화하는 등 품질 향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업계 전반적으로 교육과 현장의 괴리가 크고 통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식도 낮은 등 문제가 산재해 있다. 결국 통역의 중요한 분야임에도 학부에 커뮤니티통역을 가르치는 과정이 없었던 이유는 이 분야의 낙후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와 같았으나 통번역계 전반과 이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변함에 따라 본 연구는 통번역학과에서도 커뮤니티통역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그 수요 증가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통역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요 부족 때문이다(류현주 2006). 그러나 세계화, 다문화 시대의 도래로 최근 커뮤니티통역의 대표적 분야인 의료·법정통역의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의료통역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관광을 17대 성장동력산업²⁾으로 삼는 등 업계의 발전 가능성도 커졌고 이주민 증가로 법정통역 양성에 대한 필요성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평가, 공식기구, 통역사 단체, 윤리강령 등 측면에서 커뮤니티통역을 전문화, 구조화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kto.visitkorea.or.kr/kor/biz/marketing/medical.kto>

학문적으로 볼 때도 한국 통번역계에서도 세계화시대에 통역의 사회·문화·정치적 속성을 조망하고, 이주·다문화와 통역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고착되었던 학부 통번역 과정의 목표와 효과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국제회의 통역을 제외한 통역에는 전문 통역 교육이 필요 없다는 잘못된 인식”(류현주 2006: 93)을 바꾸고 통번역 프로그램에 커뮤니티통역 과목을 포함시켜 실용적, 기술적, 학문적 다양성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1번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 2번과 3번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고 있다.

1. 통역사에 대한 처우가 낮고, 현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대화통역 중심의 커뮤니티통역 교육은 대학이 아닌 학원이나 평생교육 기관, 단기 프로그램에서만 전담해도 되는 것일까? 대학교육의 부재가 커뮤니티통역 품질의 저하 그리고 통역사 지위의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원인은 아닌가?

2. 대학 차원의 커뮤니티통역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구성과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3. 2번의 구성과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통역 수업은 회의통역 중심의 현 통역수업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인가?

커뮤니티통역수업이 열어주는 가능성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화와 다민족, 이주의 시대에 통번역사에게 필요한 ‘학문’으로서의 의의, 둘째, 한국의 경제, 사회 상황에 접목된 ‘현지화된 통번역 연구와 교육’으로서의 의의, 셋째, 학부 졸업생에게 잠재적 직업군으로서 ‘실용적 의의’, 넷째, 교육을 통해 통역사의 위상 증진과 전문화를 추구하는 이 분야 ‘발전의 의의’ 등이다.

커뮤니티통역의 대표적인 분야인 의료통역과 법정통역은 커뮤니티통역의 일부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내용과 환경의 제약 등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공통과목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 각각 분리된 과목으로도 개설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의료통역 중심 세부 과목을 다루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원이 아닌 학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통역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필자가 2013, 2014, 2015년 1학기 학부에서 행한 의료통역 중심의 ‘커뮤니티통역’ 수업 경험과 이후 학생들의 봉사, 취

업 활동을 이끌었던 경험,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 이론적 배경

커뮤니티 통역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커뮤니티 통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료통역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본 후 국내 의료통역의 특수한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 분야의 교육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2.1 커뮤니티 통역의 특징

커뮤니티통역은 공공서비스통역, 혹은 지역사회통역이라고도 불리며 한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공용어의 사용 능력이 부족한 이주 노동자 등이 법정이나 병원, 행정기관 등을 찾을 때 법관이나 의료진, 공무원과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공공기관 내의 통역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첫째, 요구되는 통역방법이 대화통역이라는 점, 둘째, 통역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주로 병원, 법정, 경찰서, 행정기관, 학교 등 ‘제도권’이라는 점, 셋째, 대화 참여자들 중 한 편은 의사, 행정가, 변호사, 판사, 교사 등이고 다른 한 편은 난민, 이민자, 장단기 체류자 등으로 대화 참여자 간의 사회, 정치, 문화, 지적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점, 넷째, 문화적 중재자로서 통역사의 존재감이 회의통역사보다 훨씬 크다는 점, 다섯째, 사용되는 언어가 매우 전문적인 용어에서부터 극히 구어체적인 표현, 방언, 은유적 표현 등 사용역(register)의 폭이 넓다는 점, 여섯째, 사용되는 언어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 일곱째, 통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질병, 법정 구속, 사고, 행정업무, 등으로 통역 의뢰인(client)이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는 점 등이다. 같은 맥락에서 리화 장(Lihua Jang 2007)도 커뮤니티통역의 특징은 의사소통 방식(대화식), 의사소통 수단(전화/TV/미디어), 상황적 측면(의료, 법정, 공공서비스 등), 기능적 측면(연계), 즉흥적 측면 등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정철자 2010: 152 재인용).

2.1.1 커뮤니티 통역사의 지위

커뮤니티통역은 회의장에서 동시나 순차통역으로 진행되며 대화 참여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어 언어사용역의 폭도 적고 사용되는 언어의 수도 제한된 회의통역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우선적인 차이는 통역 장소가 주는 권위이다. “폐쇄되고 전문적인 공간이 아니라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인 병원, 이민국, 복지시설, 경찰서, 교화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통역은 그 기관과 장소가 주는 ‘지위’ 면에서 학자, 정치인들의 권력세계, 국제기구, 부스나 기계적 도구와 환경 등 회의통역이 주는 권위를 지니지 못했고 그 직업의 세계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 그리고 제도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Rudvin and Tomassini 2011: 22). 커뮤니티통역의 낮은 지위는 통역기관과 제도에 부여된 낮은 지위뿐 아니라 통역 의뢰인의 낮은 지위와도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지위가 낮은 이민자나 난민을 통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문적인 통역이라기보다는 그들을 “도와주는 ‘지원’ 또는 ‘서비스’ 등과 같은 단어로 정의되었다”(곽중철 2010: 10). 결국 이 분야의 의사소통은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통역 교육을 받지 못한 친지, 직원, 친구 등 임시(ad-hoc) 통역사들이 많아왔다. 샌드라 헤일(Sandra Hale 2005)은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커뮤니티통역의 낮은 지위는 상호 연결된 네 가지 원인 즉, 통역업계의 혼란스럽고 구조화 되지 않은 상황, 대학교육 의무사항의 부재, 전문직종이라는 주체성 부족, 통역업무의 복잡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등이라고 보았다(곽중철 2010: 10 재인용).

근무 환경은 이와 같이 열악하고 통역사의 능력은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는 상황과는 모순되게도 법정과 의료진단 과정에서 의뢰인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업무 수준은 사실 매우 까다롭고 높다. 의뢰인이 커뮤니티 통역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은 질병, 사망, 구속 등 한 개인의 삶이 위기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능한 통역의 결과는 오해, 갈등, 오진, 오판 등 매우 중대”(Rudvin and Tomassini 2011: 44-45)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역사는 개인의 은밀한 정보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되며 통역 주제도 인도주의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윤리강령에 따라야 하는 등 회의통역사 이상으로 책임이 막중하다. 결국 이 분야야말로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통역사 훈련과 업무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세계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과학기술, 복지, 의료, 그리고 법률 부분에 전문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커뮤니티 통역의 제도적, 실무적 확립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Rudvin and Tomassini 2011: 3).

2.1.2 커뮤니티 통역사의 가시성 (의료통역사 중심)

커뮤니티통역 분야의 제도화가 중요한 만큼 통역사의 역할 정립 또한 중요하다. 커뮤니티 통역사, 특히 본고의 연구 주제인 의료통역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단순히 통역 기술이나 언어 능력, 특정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의 범위를 넘어 사회, 문화적 중재자의 역할까지 포함 한다³⁾. 대화통역 상황에서 다양한 중재 방식으로 드러나는 통역사의 가시성과 관련하여 의료통역사의 가시성에 관한 민족지학적 연구를 한 안젤렐리(Angelleli 2004)는 통역사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소수언어 사용자가 당면한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통역사이고 두 번째는 대화참여자들이 사회적으로 각자 어떻게 대화 상황을 만들어 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가감 없이 내용을 옮기는 비가시적 메시지 전달자이다. 이 중 커뮤니티 통역사, 특히 의료통역사는 문화적, 사회적 중재를 담당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가시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통역과 관련된 많은 사회언어학 연구에서는 통역이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문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역사를 대화의 공동참여자라고 보고 있다. 이때 통역사의 가시성은 언어적인 상호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지위, 유대감,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가치관을 지니고 실제 통역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Angelleli 2004: 9)이다. 실제 안젤렐리가 제시하는 가시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며 대화 전반을 주관하는 매우 포괄적인 모습이다.

언어적 장벽뿐 아니라 문화적 장벽을 넘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 매

3) 의료 통역사와 함께 커뮤니티 통역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법정 통역사의 경우 법정에서 정한 다양한 법규 아래 통역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실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윤리규정이다”(Rudvin 2011: 66).

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감정적 뉘앙스까지 전달, 대화 참여자 간 신뢰를 쌓기, 상호존중의 분위기를 조성,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 균형 있는 (혹은 불균형한) 대화 상황 조성, 대화 참여자 중 한 쪽을 대변하거나(advocate) 협조관계(alliances)를 형성, 요청한, 혹은 주어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운용 (Angelleli 2004: 11)

법정통역, 행정통역, 의료통역 등 커뮤니티통역의 영역들이 공통점만큼이나 제도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위에서는 주로 의료통역을 중심으로 논했다. 그러나 회의통역과 비교할 때 모든 커뮤니티통역은 대화통역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언어적, 문화적으로 복잡하고 불확실 하며 불평등한 관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문화와 가치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개인, 커뮤니티, 사회에 대한 여파는 다른 통역보다 훨씬 크다”(Ricoy 2009; 1-2)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커뮤니티 통역사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높은 인식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읽는 능력, 대화 상황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는 통역 교육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2.2 의료통역

의료통역이란 “특정 지역사회에 소속된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에 의료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즉흥적인 대화를 통역하는 것”(정철자 2010: 153)이다. 행정통역, 법정통역 등 다른 커뮤니티통역과 같이 의료통역 또한 북미, 호주 등 이민 사회에서 발달하였으며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서구의 의료통역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 반면, 이민자 사회가 아닌 국내의 의료통역 상황은 인구비율, 정부정책 등을 볼 때 ‘외국인’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2009년 의료통역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 중 국내 단기 거주 외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59.4%)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외국인 거주자(21.3%), 국제의료 환자(19.4%) 등의 비율을 보였다. 국내 단기 거주자들과 국제의료 방문객이 전체 서비스 대상자 중 약 80%를 차지하는 상황은 국내 의료통역 상황이 서구와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의료통역 서비스의 목적은 국민 보건 복지 보다 병원이나 의료 산업의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을 유추해 낼 수 있다(정철자 2010: 157-158). 이에 대해 황지연(2015)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 환자가 아닌, 외국에서 한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인바운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한국형 의료통역’이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환경이 서구와 다르지만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성격상 사회봉사의 측면이 크고 세계화 시대에 국내 이주민의 수도 증가할 것이므로 국내 의료통역 교육 역시 이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념을 배제하기 보다는 광범위한 커뮤니티통역에서 시작하여 한국의 고유한 상황으로 좁혀오는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2.2.1 한국형 의료통역 상황

국내의 의료통역은 “진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서병로, 김기홍 201: 5) 의료관광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각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감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9년 1월 국제 의료사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서병로, 김기홍 2011: 72; 정철자 2010: 151),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법’을 신설하여 의료관광객 유치 및 알선 행위를 허용하였다. 2010년에는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은 등록 후 의료 활동이 가능해 졌으며 2013년부터는 보험회사들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의료관광 시장은 2009년 이후 37.3%라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미용, 성형 분야는 물론 암이나 심혈관계 수술 등 전문 진료 분야와 첨단기술 장비 부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태국 등에 비교해 인지도가 낮고 시장 규모도 작으며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 숙박업 규제 완화, 불법 브로커 규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한국의료관광총람전략편 2013: 24-34).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처럼 의료관광을 역점 발전 분야로 보고 있어 국내 의료통역 또한 의료관광과 통역이 접목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의료통역사에 대한 기대사항이나 교육, 시험제도 등도 자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민족 사회 미국이나 호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국내 의료통역

은 미국이나 호주 모델 등 이 분야의 선구적인 국가들 뿐 아니라 의료관광대국인 싱가포르나 태국 등의 의료통역 모델을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

의료관광으로 대표되는 국내 의료통역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는 통역사의 역할 규정이다. 국내 의료시스템 내에서는 의료통역사의 역할이 통역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지칭조차 의료코디네이터와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가 혼재되어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의료코디네이터는 병원행정, 마케팅, 보험, 리스크 관리, 통역, 등 다양한 업무를 행하는 인력으로 통역은 그들 업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의료통역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의료통역사는 의료관광객 유치, 입국준비, 병원진료, 숙박 및 관광, 출국 및 사후관리 등으로 이루어진 다섯 단계 의료프로세스 중 세 번째 병원진료단계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원활한 의료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지원 업무를 하는 인력이다. (황지연 2015: 116)

실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역 조사에서는 위의 업무들이 통역사나 다른 직원들 간에 중복되는 현상이 드러난다. 황지연(2015)에 의하면 의료기관 인식 조사를 위한 연구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통역 업무 수행을 하는 인력 유형은 의료통역사가 10.87%에 불과하고 의료관광코디네이터 26.0%, 외국인환자 관련 행정직이 30.43%로 더 많은 실정이다. 환자의 목숨이 달린 의료통역의 성격상 통역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정확한 역할 규정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 유치 수준과 통역사 공급 간의 경제적 수급이 맞지 않고 통역사의 전문성에 적합한 업무환경과 지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국제진료센터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국내 병원 현실에서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업무 파악과 운영에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통역사에 대한 병원 (그리고 그 안의 의사, 행정직원 등 개인 주체들) 이라는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변화와 처우개선, 통역사의 교육과 수급상황의 변화 등이 변수가 된다. 이제 의료통역을 중심으로 하는 커

뮤니티통역 수업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수업의 결과를 살펴보고
 도록 하겠다.

3. 커뮤니티통역 수업의 강의 내용과 사례 분석

3.1 기존의 커뮤니티 수업 구조와 내용

루드빈(Rudvin)과 토마시니(Tomassini)가 『지역사회와 직장 내의 통역교육 가이드(Interpreting in the Community and Workplace A Practical Teaching Guide)』에서 밝히고 있듯이 커뮤니티통역의 여러 분야는 차이점에 앞서 ‘구조’ 상으로 모든 영역이 지닌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특징을 우선 다룬 후 각 영역이 지닌 특수성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들이 밝힌 ‘구조’란 기본적으로 기관이 운영되는 법, 관련된 인물들, 의사소통 구조나 조직 내에서 통역의 기능 (즉 통역사 고용, 역할, 보수, 지위, 의사소통 방법, 업무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두번째 특수성 부분은 의료, 법정, 행정 등 각 분야의 용어, 통역사의 윤리, 문화적 측면 등을 익히는 내용 중심의 교육을 포함한다(2011: 45-46).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커뮤니티 통역 교육 구성을 위한 기준 (Rudvin and Tomassini 2011: 46)

구조	각 통역 분야의 조직과 구조 참여자 의사소통 구조와 전략(사회적, 감정적 맥락, 권력 불균형, 상호교감, 통역 서비스가 운영되는 방식)
분야별 내용	용어 문화적 차이 이해 통역 윤리 텍스트 이해

이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수업 진행은 거시적 측면에서 시작하여 미시적으로 좁혀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도입 부분에 커뮤니티통역의 역사, 통역사의 직업의 세계와 통역학계 내에서 커뮤니티통역 연구의 위치, 전문

화, 이론화 되어가는 과정 등 커뮤니티통역이라는 과목의 발전 상황을 살펴 본 후 두 번째로 각 나라가 처한 통역 조직의 특성과 이주 현황, 이주민 통계, 소수언어 사용 실태, 이문화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 통역 윤리와 업무 지침 등 국가별 상황을 다루고, 세번째로 통역사의 자질, 기술과 지식 (자세나 목소리 톤 등 스피치 능력, 공손성 전략, 비언어적 의사소통법, 통역 상황 운영 등) 등을 다루며 마지막으로 그룹 역할극을 통한 대화통역 연습이나 시역 연습, 용어 습득 등이 이루어진다(Rudvin and Tomassini 2011: 91-92). 이들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커뮤니티통역의 전반적인 배경이해 후에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통역 실습과 용어 습득을 하는 교육 구조와 활동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 커뮤니티통역 교육에도 중요한 틀을 제시한다.

이제 위에서 본 커뮤니티통역의 특징과 중요점들을 고려하여 국내 상황을 고려한 커뮤니티통역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 의료통역 교육과정은 학원, 단기 프로그램 등에서 행해졌으며 학부 차원의 커뮤니티 통역 수업은 거의 없었다. 이중 학원 수업이나 대학 내 평생교육원등에서 행해지는 수업은 단기 실습 프로그램이며 배경도 관광통역과 관련이 있고 학생들의 통번역 경험이나 학력 등도 학부 통번역학과 학생들과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교육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광중철(2009)의 제1기 의료통역사 교육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의료통역 교육 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시간 동안 행해진 교육의 틀은 <표2>과 같이 병원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료분야, 통역에 필요한 기본 의학용어 습득 분야, 통역 기술과 윤리 함양 분야, 팀별 프로젝트, 특강 및 워크숍 등으로 나뉜다. <표2>에 의하면 전문 통역사 양성과정은 의료, 의학용어, 통역 등 기능별로 교과목이 편성되고 각 분야를 다른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 실습을 통한 현장 이해, 의료/행정 실무 전문가의 특강 등을 통한 업계 이해, 문화적 다양성 이해 등은 학부 수업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 측면에서 현재 의료통역사와 통역대학원 졸업생, 의료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단기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또한 구성, 내용, 전달방식 등에서 참고해볼 수 있는 모델은 되지만 학부 수준 강의의 롤 모델이 될 수는 없다.

〈표2〉 의료통역사 양성과정 분야별 교과목 편성

구분	주요내용	담당분야 교수
의료분야	의료문화 병원 진료 프로세스 병원 내 의사소통 의료 법규 국제 의료보험 등	중앙의대 방사선과 교수
의학용어분야	주요진료과 상병명 신체부위 의료업무용어	서울의대 명예교수
통역분야	의료통역 현황 의료통역 기본업무 통역사 역할과 윤리 타문화 이해 언어별 의료통역실습 (시뮬레이션) 의료통역 현장학습 -진료실, 해부학실, 수술실	GSIT 교수진 6명
팀별 프로젝트(의료현장 실무 분야)	의료 통역현장 사례분석 문제 상황과 대응방안 언어별, 상황별 시나리오 수립	한국보건인력개발원 보건교육과정
특강 및 워크숍	교육생 오리엔테이션 등 워크숍 실무명사 특강 기타행정	

〈표2〉를 보면 나타나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인적 자원과 전문성의 제약이다. 한두 강의에서 한두 명의 교수자가 위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다양하게 진행하기 어렵고 위치럼 다양한 전문특강과 실습을 진행하는 것도 제약이 있다. 둘째, 위의 과정은 대학원 이상 통역사나 의료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강의라 전문용어나 통역 연습, 실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 커뮤니티통역 강의는 기술 측면 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 불균형에서 오는 통역상의 문제와 통역사의 역할, 비언어적 표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등 통역의 이론적 배경과 인문학적 자질 함양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전문가 대상 강의는 병원 문화, 의료 지식, 통역 기능, 실습 등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중요 ‘기능’ 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부 교

육 커리큘럼은 기본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을 제시하는데서 시작하여 이의 적용과 논의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때 앞서 루드빈과 토마시니가 제시한 강의 구조와 과정이 학부 수준에서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2 커뮤니티 통역 수업 사례 분석

학부 교육의 목표인 학문적 측면과 실제 측면에 균형을 맞추고 필자가 3학기 동안 실행한 수업 내용에 근거해 학부 커뮤니티통역 수업 구성과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강의 내용은 의료통역에 중점을 둔 것이었으나 공식적인 명칭은 ‘커뮤니티통역’으로 개설되었고 한 학기에 각각 23명, 40명, 24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하였다. 주요 주제는 전반적인 커뮤니티통역의 배경 학습, 한국의 의료통역 상황과 의료 기관 문화의 이해, 통역 능력 습득과 현장 실습과 이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강의가 전개되는 순서와 일치한다. 즉,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시적으로 좁혀 가는데 첫째, 커뮤니티 통역 전체의 특징을 먼저 살펴본 후, 두 번째 기타 커뮤니티통역과 구분되는 의료통역의 특징, 그리고 의료관점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특수한 의료통역 상황을 알아보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 분야의 어휘와 표현, 대화통역 실습 등 기능적인 면을 다루게 된다. 또한 의료통역이라는 특성상 교실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의 보완으로 특강과 현장실습 등을 통해 실제 통역 상황을 익히게 된다.

연구자의 경우 통번역 프로그램에서 처음 시도한 강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한 수업에 포함되었으나 사실 이 교육과정은 한 학기에 이루어지기에 매우 빡빡한 구성과 내용이다. 우선 한 학기에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마치는 것은 교수자에게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다. 외부 봉사 시설을 연결하고 특강의 강사를 초빙하고 수업 후 학생들의 진로를 모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는 커뮤니티통역 강의가 새로이 마련되는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이 분야의 수요와 관심의 증가로 교과목이 증설된다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수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의료통역 중심의 커뮤니티통역 수업 내용

	주제	내용
1.	커뮤니티 통역의 학문적 배경	a. 커뮤니티통역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특징 b.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도통역의 특징 c. 대화 참여자들간의 권력 불균형과 통역사 역할 이해 d. 통역사 역할의 언어, 문화, 사회적 ‘가시성’ 분석 e. 변화하는 시대 통역사 역할에 대한 새로운 규정 f. 통역사의 윤리강령
2.	국내 의료 통역 상황	a. 해외의 의료통역 특징 국내 의료통역의 특징: 의료관광과 통역이 접목된 형태 (다문화 사회의 봉사 모델과 다른 한국형 의료통역 수익 모델로서 연구) b. 국내 이주자 현황이나 해외환자 유치 등 통계연구 c. 해외 사례 연구: 싱가포르, 태국 등 의료관광 선진국 조사 분석
3.	의료 현장 이해	a. 병원 내 시설의 위치, 진료과정, 병원 문화, 위계질서,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통역 과정 이해 b. 코디네이터와 전문통역사의 차이점에 근거하여 통역사 역할 이해 *학습 방법 a. 병원 통역 봉사 b. 국제진료센터장, 코디네이터, 인턴 특강 c. 비디오 시청: 대화 통역 상황, 통역사의 가시성, 해외 병원의 상황 등
4.	통역 관련 언어능력, 기술 측면	a. 통역연습(대화통역/순차통역/지역) b.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과 비언어적 의사표현 방식 조사 c. 의학 용어 습득, 질병에 대한 배경지식

본 연구자의 경우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외의 특강이나 봉사를 위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서울 소재 모대학 국제진료센터와 학생들이 수업 내의 과정으로 봉사를 하고 특강을 들을 수 있게 협력관계를 맺은 후 대학 내 취업경력센터를 통해 양 기관 간에 공식적 산학협력관계를 체결하여 인턴 채용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외 구체적인 활동과 취업 상황은 다음 <표4>와 같다. 1,2번은 학기 내에 이루어진 활동이며 3,4번은 그 외의 인턴, 코디네이터 채용 관련 내용이다.

〈표4〉 의료통역 중심의 커뮤니티통역 수업 실습 취업 관련 활동사항

1. 강의 수강생 전원 6시간(3시간씩 이틀)의 의무적 병원 견학과 실습 (병원 시스템 파악과 코디네이터 업무 관찰, 간단한 안내와 통역으로 이루어짐)
2. 국제진료센터장과 코디네이터 각각 특강 1회 (내용: 국제진료센터 업무, 병원 해외 협력(ODA) 사항, 보험이나 의약 등 관련분야 진출 가능성, 코디네이터 업무 등)
3. 학기별로 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학생인턴 2명 채용 (실제 채용인원 수는 2013년 9월-2015년 9월 현재까지 총 5학기 7명)
4. 학생인턴으로 업무 후 병원 고용 코디네이터 인턴으로 채용 1명 학생인턴으로 업무 후 국제보험회사 계약직으로 병원에 파견되는 형식의 코디네이터로 채용 1명

수업 후 학생들의 의견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와 통역 연습을 선호하는 경우와 병원 실습과 커리어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으로 나뉘어졌다. 학교와 실제 의료 환경의 괴리, 코디네이터라는 직종의 역할 모호함, 커리어 개발의 불확실성 등 앞서 밝혔던 이 분야의 문제점이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분야의 이론적 배경이나 국내 의료통역, 해외 사례 등을 배우고 통역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다른 통역 수업과는 다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현 상황의 제약도 있음이 밝혀졌다. 향후 좀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된다면 커뮤니티통역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이슈들, 그리고 의료통역, 의료관광 현황을 학습하는 과목과 실습과 통역 기술, 용어 학습 과정 등을 각각 구분하여 교육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혼란을 줄여주고 더 큰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업무상황 발전과 교육 상황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보인다. 이와 같은 강의 구성과 교육, 실습, 채용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통역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4. 커뮤니티통역의 학부 과목으로서의 가능성

이제 커뮤니티 통역의 배경과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목으로서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4.1 학문적 의의

번역은 번역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으로 학부 차원에서도 언어, 문화, 사회, 정치적 배경 이론을 실제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김순영 2005). 실제 번역 수업에서는 다양한 번역학 연구 결과를 쉽게 소개한다든지 문화, 사회, 정치적 측면이 번역에 접목되는 최신 동향 등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통역은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언어 숙달과 기계적인 언어 치환 측면에 집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회의통역은 사회, 경제, 지적으로 어느 정도 평등한 관계의 당사자들 간에 주로 정보전달 위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 사회, 정치적 측면의 다양성에 대한 고찰 보다는 통역기술과 용어/배경지식 이해, 노트테이킹 등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당연할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통역 수업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함양하거나 깊이 있는 학문을 연마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실용적, 언어적 측면에 기울어 졌었다. 즉, 현재의 통역 수업은 학생들에게 통역 기술 이면의 이론과 배경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커뮤니티 통역은 변호사 의사와 이민자, 난민 등 사회적, 경제적, 지적으로 “지위가 높은 화자와 지위가 낮은 화자, 그리고 통역사 간”(Angelleli 2004: 7)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며 제도권 내 권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통역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 정치, 권력관계, 이데올로기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을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준다. 커뮤니티 통역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 문화, 정치적 측면 중 학부 통번역학과생에게 시사점이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역의 참여자들은 평등한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항상 시간의 제약을 받고 상황 통제권을 가진 전문직 서비스 제공자와 힘없는 이민자인 서비스 수여자 간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지식, 권위, 통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익숙함 등에 차이가 나며 이는 의사소통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통역사는 언어적 중재자일 뿐 아니라 불평등한 관계의 중재자가 된다. 이 때 통역사는 스스로가 완전히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권력, 지위, 유대감, 성별, 나이, 국적,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대해 본인이 지닌 가치관 뿐 아니라 대화 상황에 대한 문화적 규범이나 사회적 관습을 지닌 존재로서 대화에 공동 참여(co-participants)”(Angelleli 2004: 9)하게 되며 이것은 대화의 과정

뿐만 아니라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통역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과 통역사의 관계에 미치는 사회·정치적 환경의 문제는 통역사들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다.

두 번째, 통역에 미치는 ‘기관’ 혹은 ‘제도’의 힘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통역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진료실, 경찰서, 법정, 관청 등 ‘기관’이며 전문가와 통역사 등 대화 참여자들은 주로 기관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기관과 제도의 문화와 위계질서, 힘의 역학관계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예를 들어 병원 내의 민족지학적 통역연구에 의하면 “통역사들은 환자를 돕고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시간의 압박을 받는 의료진들이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통역을 수행함으로써 면담을 이끌어 가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Davidson 2000: 400). 특히 국내 병원들은 중립적인 프리랜스 전문 통역사보다 병원 직원으로 일할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통역을 포함한 다양한 책무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들의 업무에 미치는 기관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번역 수업에서는 언론이나 기관의 제도적 측면이 번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번역물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나 통역에서는 이를 보여주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점에서 커뮤니티통역에 수반되는 현장 실습과 특강, 그리고 이에 따르는 교수자와 학생의 토론 등은 제도와 기관이 통역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좋은 터전을 마련해 준다.

셋째, 통역사의 가시성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지금까지 통번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언어중재자로서의 ‘비가시성’이었다. 그러나 많은 커뮤니티통역 상황에서 통역사는 사회문화적으로 지위가 낮고 위기상황에 몰린 의뢰인과 전문직 종사자 간의 불균형한 의사소통 관계에서 언어뿐 아니라 문화, 지식의 차이를 줄여주는 문화적, 사회적 중재자로서 매우 주도적이고, 가시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규정에 따라야 하는 법정통역사보다 경우에 따라 환자의 대변인 역할까지 담당하는 의료통역사의 가시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한국의 의료통역사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행정, 안내, 보험 등 역할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병원 직원으로서의 다양한 업무 활동을 행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가시성이 언어적 차원을 뛰어 넘는다. 지금까지 통번역사는 가시성이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 분야는 통역사의 주도적 행위와 가시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넷째, 통역에 있어 비언어적 제스처와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양한 개인적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커뮤니티 통역사는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상이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불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등 각각 다른 인종, 문화의 질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 죽음을 대하는 태도나 비언어적 제스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불균형한 권력관계와 제도적 영향력 안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역사에게 중립성, 비밀유지 등 윤리 강령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숙지하는가 아닌가는 통역사의 전문성을 좌우한다. 평소 통역 기술에 대해서는 습득하면서도 통역사의 윤리강령을 배울 기회가 없던 학부생들에게 이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위의 문제들은 이주, 제도, 권력, 법규, 정책 등 사회과학적, 거시적 측면이 강해 언어와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통번역 수업에 새로운 학문적 측면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통번역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생각해 보아야 할 핵심 요소지만 회의통역 과목에서는 간과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대다수 통역학원의 의료통역사 양성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과들은 단순한 기술연마, 용어습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 실습을 접목한 교과과정은 대학교육에서만 이루어 수 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통역 수업은 회의통역 수업이나 학원의 통역수업이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학문적, 이론적 통찰력을 준다.

4.2 현지화된 통번역 교육

국내 의료통역은 미국과 같은 다민족국가와는 달리 귀화한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보다는 장단기 체류하는 외국인과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역 대상, 역학관계, 환경 등이 서구중심 커뮤니티 통역 상황과는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실제 커뮤니티통역 혹은 공공서비스통역이라는 명칭은 국내 상황과는 정확히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물론 한국이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귀화한 시민들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통번역계

는 이원화 된 국내 의료통역 체계에 대해 정확히 인식을 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 의료관광은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법령개정 이래 5년 만에 크게 성장하였다. 초기에는 건강검진이나 외래 환자 중심이었지만 점차 진료과목이 다양해지고 있고 입원 환자 수나 진료 수입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외적 환경의 변화로 한국 의료통역은 의료관광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의료관광객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이주한 이민자들 보다는 단기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 다민족 국가인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모델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내의 커뮤니티통역, 특히 의료통역 수업은 서구와 다른 접근 즉, 한국 의료관광의 현황과 의료관광의 발전 가능성, 싱가포르나 태국 등 해외 의료관광대국의 모델 등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는 국가 정책과 통역의 밀접한 관계를 알고 이의 중요성을 익힐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의료관광 중심의 국내 의료통역의 또 다른 특징은 병원들이 홍보와 통역, 보험, 교육, 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 통역사와 코디네이터는 언어적 전문성, 책임의 범위, 고용 내용 등 많은 면에서 크게 다르다. 지금까지 통역은 전문 통역사의 역할은 통역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역할을 맡는 것은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업무의 모든 것을 알고 장악한다는 면에서 통역을 하는 코디네이터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국적 의료통역 상황은 다른 영역에서도 통역사의 역할이 언어 전달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 변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코디네이터가 통역업무를 함께 보는 것이 통역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이 분야가 발전하면 통역사와 코디네이터 업무는 분리되어야 할 것인지’, ‘사회가 바뀌면서 통역사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것인지’ 등은 교과 과정에서 다루어 볼 좋은 주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현지화된 통역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국가정책과 통역의 관련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 단지 현재 드러난 국내 의료통역계의 통역사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통역사와 코디네이터 역할 구분의 모호함으로 인한 혼란은 교육이나 진로지도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4.3 학부 졸업생 직업군으로서의 가능성

정혜연(2008)에 의하면 학부 통번역교육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통번역 시장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회의실, 연회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회의통역만이 아니라 의사의 수술실, 행정가나 변호사의 사무실, 교도소, 경찰서, 법정 등과 같이 개인의 일상적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뤄지는 수행, 안내, 대화통역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의료통역은 회의통역보다 통역 요율이 현저히 낮아 현직 회의통역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이 분야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보다 근무 환경과 보상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회의 통역사들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리라 전망해볼 수 있다. 실제 현재 이 분야는 2년제 관광이나 의료 관련 학과졸업생이나 임시 통역사들이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근무환경에 비해 이들에게 요구되는 통역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커뮤니티통역 상황에서는 부정확한 통역이 진단이나 판결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의뢰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역 관련자들은 회의 통역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우며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곽중철 2010: 13)고 할 정도로 이 분야의 통역은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통역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통역사들을 고용하는 경우 객관성, 통역 기술면에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처럼 ‘국제회의 통역사’들과 ‘임시 통역사’ 사이에 존재하는 능력과 보수의 불일치로 인한 수급문제는 이 분야의 큰 문제이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험 있고 능력 있는 학부 졸업생들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

학부 교육은 현재 우리나라 통번역 시장이 요구하는 통번역사를 양성하되 대학원 교육과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통번역 시장은 회의통역과 문학 번역 이외에도 보다 일반적 통번역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들의 활동영역은 되도록 대학원 출신 통번역사의 활동영역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혜연 2004: 467)

즉 대학원 출신 통번역사가 하는 업무와 대학 졸업 통번역사의 업무는 경쟁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학부 과정 통역의 경우, 회의통역사가 아닌 대화통역사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학부 통번역학과 교과목에 커뮤니티통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통역을 추가한다면 통번역학과 학부졸업생들이 통번역 지식과 이 분야의 실습 과정을 거쳐 활동을 할 경우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4.4 교육을 통한 커뮤니티통역사 위상 제고와 전문화

대학 차원의 커뮤니티통역 교육은 이의 부재에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료통역과 법정통역으로 대표되는 커뮤니티통역은 통역사의 책임이 매우 크고 다루어지는 사안의 위험도가 큰 반면 통역사의 업무에 대한 일관된 규정이 없고 사전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인식, 낮은 품질, 낮은 지위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자신감 있는 통역사만이 커뮤니티 통역의 필수 요소인 발언 방식 결정, 발화 길이 결정, 좌석 배치, 정보 요청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자신감은 실력, 위상 그리고 확실한 전문직업인의 정체성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전문가가 되기 전 받는 의무적 대학 교육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곽중철 2010: 14 재인용 Hale 2005 14-29).

대학 수준에서 통번역 교육을 받고 커뮤니티통역에 투입되는 경우 더욱 자신 있게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또한 통역은 훈련이 필요 없고,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업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학부 내에 공식적으로 교육 과정이 포함된다면 커뮤니티통역의 품질 상승에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 어떤 분야건 교육과 평가의 기준, 윤리강령, 공식 기구 등의 마련이 전문화의 척도임을 생각할 때 학부에서의 커뮤니티통역 교과목 개설은 이 분야의 전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5. 결론

커뮤니티통역은 통역사의 낮은 지위와 인식, 전문성 부족, 대화통역 중심, 업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까지 학부 통번역 과목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의료통역을 기반으로 본 커뮤니티 통역은 학문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직업군으로서의 가능성, 사회적 측면의 발전 가능성, 통역 기술의 다양성 확보 등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학부 교과목으로 수용할만한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본 커뮤니티통번역 학습의 장점은 통역 뒤의 사회, 문화, 정치적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는 점, 의료관광이라는 정부 정책과 이것이 통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 학부생들에게 의료나 법률 등 특정 분야 실습을 통해 향후 커리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 다양한 통역 방법과 전문적 용어, 표현 능력 함양,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 습득 기회를 준다는 것 등 매우 다양하다.

이 많은 장점에도 아직 확립이 덜 된 분야인 만큼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우선 한 두 학기 교육을 받아도 의료, 법률 분야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것과 그런 능력이 있는 경우 보수가 그에 상응하지 못해 결국 이 분야를 외면할 수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이다. 또한 커뮤니티 통역은 교육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통역봉사 실습과 특강, 업무 연결을 위한 병원과의 연계와 추후 관리 등이 중요한데 개개 교수가 이 모든 요소를 과정 중에 포함시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대학의 교수진들은 이 분야가 아직 생소하고 현지에서 통역을 행하는 인력들은 특강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커뮤니티통역이라는 분야 자체가 아직 발전 단계에 있어 개념이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의 한계가 될 수 있다. 학생들로서도 이처럼 다양한 내용을 한 학기에 배운다는 것은 새롭고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경력 개발 면에서 생각할 때 아직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다양한 교과목과 시간이 배정이 되고 체계화가 되면 통번역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하고 이 분야의 전문화를 이끌 것이라 여겨진다.

커뮤니티통역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분야이다. 그것은 통역사의 역할, 윤리, 책임 등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질문들이다. 즉, ‘통번역

만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인 통번역사인가? 아니면 코디네이터로 다양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통역사는 중립성은 무엇이며 그것은 가능한가?’ ‘통역사는 가시성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커뮤니티통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의료통역과 법정통역, 행정통역 등 다양한 커뮤니티통역 세부 영역은 각각 차이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의료통역만을 중심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면도 있으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영민 (2005) 「대화통역사의 중재적 기능」,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7(1): 3-17.
- 곽중철 (2010) 「2009년 한국 제 1기 의료통역사 교육사례 연구」, 『번역학연구』 11(1): 7-43.
- 김련희 (2011) 「학부 번역교육의 현재와 미래」, 『통역과 번역』 13(2): 10-52.
- 김순영 (2005) 「학부 번역교육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소고: 이론 기반 텍스트 분석 교과목의 도입」,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1): 27-43.
- 류현주 (2006) 「커뮤니티 통역의 전문성 제고 방안」, 『번역학연구』 7(1): 87-103.
- 서병로, 김기홍 (2011) 『의료관광 산업』, 서울: 대왕사.
- 정철자 (2010) 「시장 수요 조사에 근거한 한국형 의료 통역 연구」, 『번역학 연구』 11(2): 151-172.
- 정혜연 (2008) 「통번역 분야 변화에 따른 학부통번역 교육의 새 방향」, 『Foreign Language Education』 13(1): 459-483.
- 황지연 (2015) 「한국형 의료통역에 관한 소고」, 『통번역학연구』 19(1): 105-126.
- Angelleli, Claudia (2004) *Medical Interpreting and Cross-cultural Communicatio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 Davidson, Brad (2000) 'The Interpreter as Institutional Gatekeeper: The

- Social-linguistic Role of Interpreters in spanish-English Medical Discourse’, *Journal of Sociolinguistics* 4(3): 379-405.
- Feinauer, Ilse and Harold M. Lesch (2013) ‘Health Workers: Idealistic Expectations versus Interpreters’ Competence’,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1(1): 111-132.
- Gile, Daniel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 John Benjamins.
- Hale, Sandra (2005) ‘The Interpreter’s Identity Crisis’, in Julian House, Rosario Martin Ruano and Nicole Baumgarten (eds.), *Transl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Seoul: IATIS.
- Mikkelson, Holly (1996) ‘The Professionalization of Community Interpreting’, *Global Vision: Proceedings of the 37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77-89.
- Rudvin, Mette and Elena Tomassini (2011) *Interpreting in the Community and Workplace A Practical Teaching Guid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Ricoy, Raquel de Pedro (2009) ‘Introduction’ in Raquel de Pedro Ricoy, Isabell Perez and Christine Wilson (eds.), *Interpreting and Translating in Public Service Settings Policy, Practice, Pedagogy*, Manchester and Kindrhook: St. Jerome Publishing, 1-7.

[Abstract]

Diversification of Interpreting Education by Incorporating Community Interpreting Course

Kim, Soon Mi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suggest ways to diversify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courses at undergraduate level in Korea by incorporating community interpreting course in existing courses. With the emergence of new discipline “community interpreting” in academia, increase in commercial importance of community interpreting, especially medical interpreting, and establishment of profession on the field, there is a need to train community interpreters to meet the demand for more professional medical and legal interpreters. Drawing on my three-semester experience in teaching community interpreting focused on medical interpreting at undergraduate level, this paper tries to show the benefits of incorporating community interpreting course in the following four aspects: 1) highlighting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aspects of interpreter mediated situation; 2) adopting localized interpreting environment focusing on commercial interest of the Korean medical industry; 3) offering job opportuniti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4) enhancing the status for community interpreters.

▶ Key Words: community interpreting, medical interpreting, interpreting education, localized education

김순미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smikim@sookmyung.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과 이데올로기, 번역과 사회학, 커뮤니티 통역

논문투고일: 2015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24일